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성경:

Tag:

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이니이다

7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8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열미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 우리 하나님이며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11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12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

## 계 되리라 하셨나이다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14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스9:5-15)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나,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항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사랑제일교회 소식.)

요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건설현장 일감을 놓고 민주노총이 건설사를 압박하여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투입시키고, 한국노총은 여기에 반발하는 형국이다.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는데 정부는 불구경이다. 민주노총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로가 큰 노총에게 빛을 지고 있어서 코로나 시국에 불법 집회지만 벌금이 150만원 수준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너그럽고, 교회에는 가혹하다. 반정부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온통 불법 투성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에 정부가 주도적이다. 원전 무력화(최재형 감사원장 반발), 태양광 사기 범람, 국방포기와 무력화(박찬주), 주택정책 고집, 최저임금 고집. 부자와 가난한 자 갈라치기 전략을 주요 정책 추진 수단화, 자기편 여론 만들기, 공산주의 정책 밀어붙이기 등. 이젠 정부도 국민도 서로 지쳐있다. 언제나 이 망나니 춤이 끝나나 명때리고 지켜보고만 있다. 조국일가와 윤미향의 내로남불과 억지에는 더 이상 화도 내지 않는다. 이상한 여론조사. 여론마저 중국의 댓글부대를 힘입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불법도 용서할 수 없고, 무능도 용서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테러로 몇 년 잘 나가던 미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기 동안 미국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중국의 횡포가 극심해졌다. 이미 탈레반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

이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 한국인 곁에서 돕던 자들의 탈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이걸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난민을 ‘특별유공자’ 취급하는 것은 꿈수다.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일이지 유공자 논란은 첫부른 판단.

또 한가지 잘한 일은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감옥에서 풀려난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다. 그는 반도체와 바이오에 240조를 투자하고 4만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정부는 열심히 일하라고 풀어준 셈이다. 불법채용 논란. 이사가 아니니 채용도 아니고, 정식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변명 아닌 부끄러운 변명을 했지만, 어쨌든 결국 일하게 만든 셈이다. 이 일은 매우 교훈적이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정치인들이 잘 한 일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하는 자에게 답이 있다. 일할 수 있는 자에게 답이 있다.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자에게 답이 있다.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자에게 답이 있다.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 성실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다. 자기 이익 생각하지 않고 일을 일답게 하려고 하는 자가 결국 일을 잘 해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많다. 문제는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양아치 근성이 있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시국에 한국교회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자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기가막힌 소식을 듣고 성전 앞에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온다. 심지어 방백들과 고관들까지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소식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무슨 큰일인가 싶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남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표식이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처음에야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결국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크게 되고, 그런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건한 분위기가 변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부터 갖은 이방의 미신 생활까지 범람하게 되고,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세상이 변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씨앗을 방치하다가가는 온통 잡초밭이 되고 만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에스라는 강력한 신앙재무장을 부르짖었다. 당시에 에스라의 지도력이 강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복종하였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금 회복되었다.

(에스라 이야기. 도대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명을 내린 것일까요? 그는 페르시아의 제 6대 왕 아닥사스다 1세 즉 아닥사스다 룡기마누스 왕을 말합니다. 물론 그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였던 아하수어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왕비인 에스더를 잘 알았고,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호적이고 나아가 저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1년 임기 총회장이 아니라, 사무엘과 모세

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오래도록 여러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난 무흠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성과 인격을 갖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한국 기독교 언론은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정치를 죄악시 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러나 교계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온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선지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명이 아니라 12명 정도는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중대한 교계 일을 의논하고 추진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를 발굴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는 여론전을 대비해야 한다. 여론을 놓치면 전도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성도들까지 놓친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방송국을 만드는데 힘을 썼지, 정작 그 방송국을 통해서 여론을 리드하는데는 실패하였다. 건강하고 영향력있는 방송인을 만들어내는데 힘써야 한다. **경건하고 영향력있는 방송인을 세워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트럼프보다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야 한다. 교회가 앞장서서 전문정치대학원을 만들어 경건한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트럼프보다 훌륭한 정치인을 세워주소서.**

한국교회는 경건한 연예인을 키워야 한다. sm 이수만이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한국교회는 다방면에서 우수하고 경건한 일꾼들을 키워야 한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교회도 각자 일터에서 일터사도가 되도록 분발합시다.

경건한 부자가 되고,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세상은 경건한 자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요즘처럼 불법이 난무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많아지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선한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건강한 사상      성경: 역대하 13장

Tag:

역대하 13장. 아비야의 3년 통치.

7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 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여로보암의 결정적 실패 원인.

사회적 이단에 눈을 떠야 할 때, 종말론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기독교는 언론 왕따를 당하고 있다.

교회여 종말론 망령에서 깨어나라! 세상은 경건한 일꾼을 목말라하고 있다.

기독교이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국제적 정치이단; 탈레반, IS(이슬람), 북한정권(이스라엘 정부의 적)  
사회적이단; 극단적 페미니즘, 좌파이데올로기, 우파이데올로기,

K-페미니즘;1세대-자유주의(남녀평등,정치적평등), 2세대(레디컬. 제도가 중요하지 않고, 남성이 문제다. 가부장적인 사회다. 사회적 억압. -k페미니즘의 뿌리. 남성의폭력성은 오히려 약한 것. 여성이 더 우월함.), 3세대(상호교차성. 교육을 받은 여성만 1세대의 자유주의 쟁취하더라. 원래 가난한 여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2세대와 3세대의 싸움중.

나혜석-자유주의 페미니즘.

김활란-기독교 페미니즘.

YWCA-김대중정부의 여성부로 옮겨감. 남녀갈등이 적었던 시기.  
(90년대 이후 여성단체들이 많이 생겨남-여성부가 지원함)

\*넷페미시대 (남자훈련소 참조)

dc인사이드가 원조;(오유;오늘의유머, 클리앙, 보배드림, 일간베스트  
저장소-현재 여혐의 주장격)

dc인사이드;김치녀, 된장녀가 만들어진 곳.

일베-좌파패기, 여혐 조장.

일베에서는 여성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됨. 분위기.

2015 메르스 유행. 메르스 갤러리. 메르스검사를 거부한 여성 편취.  
이곳에 여성들이 몰리게 됨. 미러링 시작. 일베출신들이 하는 여혐  
미러링은 폭력적 수준임이 드러나게 됨. 막장 갤러리가 됨. 제재를  
당하자 이들이 몰려가서 메갈리아 시작(메르스+이갈리아의 딸들)

-메갈리아의 수위가 높아짐. 게이아웃팅 사건. 게이 고발사건.(가족  
에게) 여초카페회원들과 일베여성들 간에 세력 다툼.

-일베출신들이 워마드 만들어 독립. 일베여성+레디컬.

-이후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sns나 오프라인을 감. 류호정. 신지애  
3세대 페미니스트.

-워마드는 일베여성, 레디컬, 여성의당. 열다북스 국지혜. 정치적으로  
로는 보수적. 트랜스젠더 싫어함.

-워마드가 10-20대 여성을 통제하고 있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

극단적 페미니즘;워마드 메갈리아